社 說

거대한 변화와 혁신 선도 진짜 저널리즘 구현하겠습니다

창사 32주년에 부쳐

균형있는 시각과 공정한 보도로 지역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해 온 광주매일신문이 제32주년을 맞아 혁신적 변화에 나선다.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와 전남 곳곳의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생생하게 전달,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있다. 여러 현안과 이슈에 대한 다각·심층적 접근을 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흔히들 위기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고질병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지역언론도 여론 영향력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과 자본 모두가 중앙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로 치닫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이탈이 가속화됨으로써 지역이 사라지고 언론 또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핵심 콘텐츠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때다.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상생 발전에 대한 어젠다를 제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2023 세계기자대회' 콘퍼런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의 세션에 주목했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이어 인공지능(AI)를 통해 성큼 다가선 새로운 물결과 나름의 대응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는 저널리즘의 미래로 집요한 혁신을 꼽으며 AI를 활용한 과감한 업무 개선을 해야 하고,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팩트 기반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문의 날 축사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짓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것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겠으나 언론 길들이기, 통제를 위한 방편이어선 안 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검증 역량 제고라는 과제가 던져졌다.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으로 광주매일신문은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호남 대표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정론직필(正論直筆)'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따른 바로쓰기를 실천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다. 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3·1 운동, 4·19 의거, 그리고 5·18로 확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논쟁거리가 결코 아니다. 전국화, 세계화를 향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한 줄의 언급도 없어 성의가 부족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 포인트 개헌에 당장이라도 나서야 한다. 5·18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지만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0가지 조항을 공식 건의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국회를 동시에 통과한 '쌍둥이법'으로 함께 입법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해 독소조항,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즉각 개선돼야 한다.

민선8기 광주시·전남도는 상생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제1호 과제인 반도체 특화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비롯해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고자 전력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가고 있다.

점차 현실화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천 년의 역사 공동체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실용위성을 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완벽한 비행 '으로 주목받는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심도시 광주, 100만평 규모 미래자동차 산업단지 등은 특히 기대가 크다.

문제는 경제다. 민생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은 또 어떤가. 작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역대 대선 최소 표차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야당 지도부와 만남조차 피하고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69석의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천문학적 가상화폐 수익 논란 등으로 도덕성이 곤두박질쳤다. 친명-비명 계파 다툼까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다.

강성 지지층, 팬덤에 의지하며 국민 통합은 커녕 국내외 복합 위기에 손을 놓았다. 극단의 진영 대결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실종이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사라지고 '정상의 비정상화'가 재차 소환되는 모습이다. 불합리와 부조리, 과거로의 뚜렷한 퇴행이다.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냉소가 넘친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광주매일신문은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다. 열린 자세로 지역민의 의견, 쓴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것이다.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광주와 전남,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치·경제·사회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 진력하겠다. 민생과 직결되는 의제 설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화형 '챗(Chat)GPT'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대 '진짜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더 소통하겠다. 다시 일어나 더 치열하게 뛰겠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쇄신할 것을 약속드린다. 든든한 동반자, 진실한 벗으로 광주매일신문부터 거듭나겠다. 거대한 변화의 시기,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의 본분을 되새기겠다.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 담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이성대 칼럼

법의 지배원칙과 법을 통한 지배

시사평론가

법을 잘 모르더라도 법치주의(Rule of Law)란 말은 들어보았을 듯하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 원칙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부나 권력자들도 예외없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권력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배하는 인치주의와 상대되는 말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 아래에 있으면서 법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이 '법의 지배' 원칙에는 역사적으로 그럴 듯한 유사품이 존재한다. 그것은 '법을 통한 지배'(Rule by Law)라는 것이다. '법의 지배'와 '법을 통한 지배'는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법의 지배 원칙이 보편성, 객관성을 가진 법이 지배한다는 원칙이라면, 법을 통한 지배는 법이 단순히 규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 원칙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나 권력자들도 예외없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통한 지배가 법적 틀 안에서 정부의 권력이 행사되기는 하지만 정부나 권력자가 법을 무시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점과는 매우 상이하다. 법을 통한 지배는 전통적인 인치주의와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인치주의가 통치의 기본 원칙이었다. 역대의 왕조들은 하늘의 명을 받아 정치를 행한다고 표방했다. 그 하늘의 명이 결국 백성의 목소리로 해석된다고 해도 결국은 왕의 권위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통치가 행해진 셈이다. 따라서 법을 통한 지배는 임금의 선의에 의존하는 인치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래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빈번한 일이 되고 있다. 검사출신 대통령이 나온 이후 법조인들의 정치참여가 당연시되고 더욱 가속화되는 느낌이다. 이것은 국가 공동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법이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이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기물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원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그 운영에 있어서도 공동의 이익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법조인 출신들이 자신들만이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오만함으로 국가를 특정 세력의 전유물처럼 활용하려 한다면 매우 우려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법치주의가 아닌 법을 통한 지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언론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우려를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을 통한 지배의 치명적인 사례는 이웃나라 중국의 고대역사에 등장한다. 중국 최초의 제국, 진나라는 모든 것을 법에 의해 처리했다고 알려졌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상벌을 분명히 한 것이 진나라가 성공한 이유였다면, 너무도 가혹한 법집행으로 민심의 분노를 산 것이 진나라가 망한 이유이기도 했다. 진나라는 법으로 흥하고, 법으로 망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대 왕조에게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었다. 법을 통한 지배일지라도 인간의 얼굴이 결여돼 있다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대왕조들은 통치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다. 법을 통한 지배이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치주의에 머물러 있을 뿐 근대적인 법의 지배 체제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근대 이후 우리 역사는 인치주의의 허구성에 맞서 싸워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역대의 권위주의 독재정권들은 법을 내세우며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한국적 민주주의, 정의로운 사회 등을 부르짖었지만 법을 통한 가혹한 통치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법은 피통치자인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었고, 자신들은 항상 법위에 군림하는 지위를 누렸다. 이런 전근대적인 법을 통한 지배를 깨부수고 등장하는 것이 근대적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시민들이라면 항상 법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의 지배와 법을 통한 지배는 명백히 다른 이념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들에게 평등하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하고,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더욱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법의 지배 원칙을 법을 통한 지배로 왜곡하고 오도하는 어떤 정치세력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의 지배 원칙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법을 통한 지배는 법의 내용과 적용을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기 고

미네르바 대학이 관심을 끄는 이유

주 정 민

전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미네르바 대학을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과 다른 교육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에서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을 벤치마킹한 태재대학이 오는 9월에 문을 연다.

미네르바 대학은 입시경쟁이 치열해 지원자의 평균 0.8%만이 합격한다. 입학생은 세계 일류 대학인 하버드나 MIT를 포기하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에 출발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을 이어온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네르바 대학을 세운 벤 넬슨은 미국의 명문사학인 펜실베니아 경영대 와튼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현재의 대학 시스템이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1년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했다.

미네르바 대학은 예술과 인문학, 경영학, 컴퓨터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라는 5개의 전공 과정을 운영한다. 입학자는 1학년 때 하나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5개의 전공 안에서 학생 스스로 세부 전공을 정해 공부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 과정에서 인지, 뇌, 행동학을 전공할 수 있다. 특정 전공에 학생이 몰리면, 학생에게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분야 교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한다.

미네르바 대학 입학자는 1학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네르바 캠퍼스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서울(한국), 하이데라바드(인도), 베를린(독일),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런던(영국), 타이페이(대만) 7개 도시의 기숙사를 순회하며 공부한다. 해당 도시에 머물면서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기반 과제와 기업이나 단체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모든 수업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미네르바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다. 20명 이하로 구성한 강좌에서 교수와 학생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한다. 학생들은 미리 수업내용을 공부해 오고, 수업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토론한다.

미네르바 대학에서 강의는 없다. 강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교육이다. 그러나 배우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교육일 수 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에서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협력자 역할을 한다. 교수는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도 기존 대학과 다르다. 시험이 없고, 대신 교수가 녹화한 수업을 돌려보며, 학생의 발표, 수업태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매긴다.

미네르바 대학은 학생이 스스로 학업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과 생생한 학습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강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 그리고 이론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대학은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네르바 대학은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소통과 협력, 그리고 다양성과 도전정신을 길러주고 있다. 그래야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철저한 대비로 장마철 안전을 확보하자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잦은 비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상기온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재난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야외로 나가기 전에 기상상태와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바람이 치는 동안 실내에 있다면 문과 창문을 닫는다. 난로 및 파이프, 싱크대 같은 금속 물체에서 떨어져 있고, 전기기구의 플러그는 빼두어야 한다. 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피한다. 자동차 내에 있다면 차안에 머물러 있는다. 개활지에서는 산골짜기나 계곡과 같은 낮은 장소로 이동하고 나무와 같은 자연 상태의 피뢰침 아래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좋다.

평탄한 초원이나 목초지 내에서 번개가 치게 되면 지면에 납작하게 엎드리지 말고 야구 포수처럼 굽혀서 웅크리고 양손을 양 귀 위에 놓아서 고막이 터지는 것을 막고, 몸이 도체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몸이 지면에 닿는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낙뢰로 인한 부상으로 호흡이 없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부상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가오는 장마철, 안전수칙을 꼭 숙지한다면 낙뢰,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안전수칙을 익혀두자.

〈오원균·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